올 약초농사 작황 부진

냉해피해 이상저온 현상 영향

예년보다 평당 수확량 감소 예상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 직제개편내용과 재정난 해소책에 대해서도 논의 됐다.

이상저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약용작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올 생약농사 수확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한낮의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상 저온현상과 비가 자주오면서 햇볕 쪼임량이 적어 파종작업을 끝낸 산간지 약초등 농작물의 작황이 예년보다 최소한 열흘정도 늦어지고 있다.

생약협회 전라남도 구례군 사무소장 정일영씨는 『산수유는 노란꽃이 필 무렵 서리를 맞으면 결실이 떨어지는 법인데 올해는 개화기때 서리가 두번이나 내린 탓에 올 가을 수확량이 예년만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 평창이 주산지인 당귀도 올들어 작황이 부진하다. 추대율(꽃대가 서는 현상)도 높고 냉해로 인해 벌써부터 뿌리가 상하기도 해 올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날씨가 6월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장마철 고온다습한 기상상태까지 이어질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규격화 적극 대처키로

생약협회, 초도이사회서 결의

한약관리규정의 농가자가규격화 허용폐지 움직임과 관련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에 적극 대처키로 결의했다.

이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농민 자가규격화 허용조항이 폐지될 경우 생약재배 농민들은 더이상 약초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일차적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복지부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11대 임연학 회장 취임 후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처음 열린 이번 이사회에서는 규격화대책안 이외에도 △협회 조직활대방안과 사무국내 직제개편내용 △협회 재정지원방안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협회 사무국내 직제개편안이 심의 통과됐으며 이사들은 이날 남정학 전무대우를 전무로 공식 승인했다. 그러나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된 바 있는 「안기금에서의 회장수인금 지출」문제는 이날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또 협회 사무국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이사진에서의 운영기금지원 방안과 「군살빼기」안등 두 가지만이 설득력있게 제기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신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사 설

부칙 3조 삭제 논의

현행 농가에서 생산된 생약재는 생산자가 직접 세척, 건조, 절단, 포장등 엄선 가공하여 자유롭게 판매함으로서 부가가치를 높혀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며 생산자 책임하에 운반, 저장, 품질관리를 용이토록 하고 소비처와의 직거래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WTO 및 OECD 가입으로 국가간에 자국농민을 보호하는 정책마져도 문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의한 무한 경쟁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생약재 규격화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안)"이 발표된 이후 이의 부당성과 보완책을 생산농민, 생산자 단체가 수차례 관계부처에 질의하고 협의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부칙제 3조"를 두어 "36개 규격품 대상 한약 중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가공 포장한 제품도 표준 규격에 적합한 한약재의 경우에는 이를 판매 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생산자가 직접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농가의 주요 소득 작물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국산 생약재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모처럼 합의된 이규정이 보건사회 연구원 의료개혁 위원회에서 제반 문제점을 간과한 채 본 규정을 삭제하려는 논의가 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생산자단체나 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업소에 한해서만 표준규격을 생산하도록 제한함으로서 생산 농민들의 재배의욕 상실은 물론 농가의 생약재배 위축을 초래하고 국내생약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됨으로 생산농민 및 생산자 단체 자가규격화 허용을 촉구한다.

또한 수급조절용 한약재(29개품목)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쓰여지도록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 / 김영월씨(60·소비자)

"생약자원 소중함 알 것 같아…"

『보통때는 그냥 흔한 잡풀이려니 생각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예사롭게 봐 넘겨지지 않아요』

지난해 양평 중미산에서의 행사 기억이 너무 좋아 올해도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에 또 참가하게 됐다는 김영월씨(60·관악구 신림6동 296-18호)는 관심만 있었지 약초의 약 자도 몰랐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유익한 상식을 많이 배우게 됐다고 흡족해 했다.

평소에도 산을 자주 찾는다는 김씨는 『맑은 자연속에서 산행도 하고 몸에 좋은 약초도 캐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무심코 지나쳤던 풀뿌리들이 저마다 효능을 가지고 약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에 마냥 신기해 했다.

또 이런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우리 생약자원의 소중함도 새삼 깨닫게 된다고.

경동약령시 대축제

약재전시및 무료진료 투약 등 다채

서울 경동약령시는 6월3일 동대문구 경동약령시에서 「경동약령시의 날」 지정 기념 대축제를 개최했다.

경동약령시는 조선시대 가난과 병고에 시달렸던 백성들에게 의술과 탕약을 베풀어 새 삶과 희망을 주었던 구휼기관인 보제원이 있었던 곳.

지난 95년 6월 약령시로 지정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농악대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전통의식인 보제원 제향의식 재현행사를 갖고 오전 10시~정오 사이 무료진료 및 침술을 선보였다.

한국생약협회는 이날 국내 자생, 재배되는 1백여 종의 우수국산 약재를 전시했다.

이밖에 1번아치거리 일대에서는 △약재를 이용한 음료 무료시음회 △수입약재 전시 및 약효설명회 △약썰기 경연대회 △노래자랑 큰잔치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다.

인삼 「품질인증제」 추진

농림부, 고려인삼 세계화 전략 마련 위해

앞으로 수출용 인삼에 대한 품질검사가 대폭 강화되고 수출검사품에 대한 위조가 어렵도록 공용 「품질인증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리적 표시제를 활용, 〈고려인삼〉의 상표를 보호하고 이를 이용한 인삼주를 개발, 세계화하는 전략이 마련된다.

농림부는 최근 해외경쟁 심화 등에 따른 인삼류 수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삼류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위해 우선 지난해 7월부터 홍삼 전매제가 폐지되고 인삼 관련업무가 농림부로 인관된 것과 관련해 산하기관 및 단체의 역할을 분담, 민간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수입약재 규격미달 여전, 관리시급

외국산 한약재가 여전히 규격미달이거나 부패된 채 수입되고 있고 불합격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되는 한약재가 늘고 있어 품질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따르면 96년 한해동안 수입한 녹용 등 3백9개품목의 한약재 2천9백17만6천kg을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이화학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92건 16만1천7백45kg이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능검사결과 오가피등 15개품목에서 규격미달로 26건이 불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우황등 6개품목 7건에서는 이물질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수입품목인 녹용의 경우 19건(85kg)이 부패된 채 수입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요망됐다.

인사

「免」

△박갑성 전북 정읍시 사무소장 97년 6월 4일부 △박원섭 경북 군위군 공판장장(사무소장은 유임) 97년 6월 4일부.

「任」

△류상철 경북 영주시 남부 사무소장 △강신규 경북 문경시 사무소장 △우대성 강원 영월군 공판장장 △이민환 경남 진해시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이상 95년 6월 4일부〉

내방

△황인구 부회장 △허성무 부회장 △엄경섭 이사 △임경학 이사 △김용한 이사 △김성배 경기도 지부장 △박종연 이사 △이웅황 경기 안성군 사무소장 △이종열 강원 인제군 사무소장 △우대기 강원 태백시 공판장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판장장 △최상환 경북 경주시 갑구 사무소장.